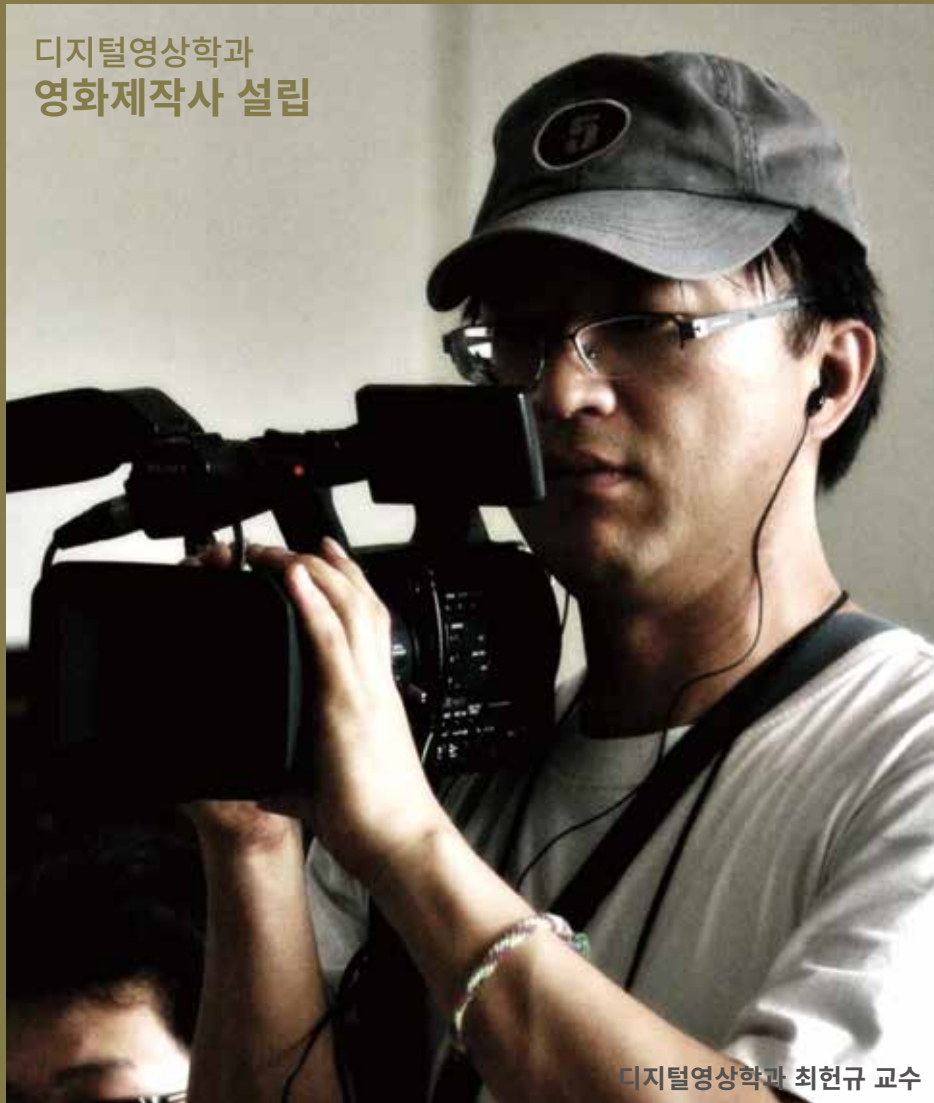


희망소식

HSCU 화신사이버대학교
www.hscu.ac.kr

2019년 5월 발행 No. 12

디지털영상학과 영화제작사 설립



디지털영상학과 최현규 교수

[학우와의 대화] 한국어교육학과 15학번 배홍기 동문

실습실 컴퓨터 업그레이드 / 재학생을 위한 Windows10 무료 업그레이드 서비스

조혜진 학생,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 선발

소식 목차

- 2019-04-05 디지털영상학과, 영화제작사 설립
- 2019-03-08 실습실 컴퓨터 업그레이드
- 2019-04-19 재학생을 위한 Windows10 무료 업그레이드 서비스 진행
- 2019-04-19 양산지역 학생 만남의 날' 개최
- 2019-05-02 조혜진 학생,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 선발
- 2019-05-10 '문화복지연구회'행사 개최
- 2019-04-19 [학우와의 대화] 한국어교육학과 15학번 배홍기 동문

디지털영상학과, 영화제작사 설립

본교는 학내에 영화사를 설립, 지난 2일 연제구청 문화체육과에 영화업 신고를 완료했다.

영화사명은 <간도리와 잔디>이고, 디지털영상학과 책임교수인 최현규감독이 대표를 맡는다.

최현규 감독은 한국영화아카데미 15기 출신으로, 2018년 3월부터 디지털영상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영상물등급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또한 작품 <소은이의 무릎>이 5월 30일 극장 개봉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설립한 영화사는 화신사이버대학교가 보유한 영화 촬영 장비와 차량, 스튜디오 등을 적극 활용, 학내 영상팀 및 디자인팀과의 협업을 통해 영화와 웹드라마 등 다양한 영상콘텐츠를 제작하게 된다. 또한 부산영상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그리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제작 지원 사업 등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실습실 컴퓨터 업그레이드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다.

PC실습실은 화신사이버대학교의 재학생이면 누구나 사용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다.

이번학기 4월부터 화신사이버대학교 실습실에서 최신의 고사양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다. 학생들의 보다 원활한 PC실습을 위하여, 화신사이버대학교에서는 최신의 고사양 PC (CPU: Intel 8700K, 그래픽카드 GTX 1060, 저장장치: M.2SSD 256GB)를 구매하였으며, 그래픽 디자인, 영상편집 등 다양한 실습을 학교에서도 원활하게 제공할

재학생을 위한 Windows10 무료 업그레이드 서비스 진행



본교에서는 최적의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재학생을 위한 Windows10 무료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4월 10일부터 진행중이다.

기존 Windows10 이하의 버전을 사용하는 재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제공하는 오피스365계정 및 업그레이드 주소를 통하여 최신 Windows10 버전에 대한 업그레이드 라이선스 및 설치파일을 받아 Windows10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양산지역 학생 만남의 날' 개최

4월 16일, 양산지역 재학생 및 신입입생 등과 함께하는 '양산지역 학생 만남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날 만남 행사는 화신사이버대학교 주최하는 지역 행사로 교육복지 활성화를 및 재학생들의 친목 도모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역량 강화와 화합을 위한 모임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김영준교수의 '대학서비스 안내', '주요학사일정', '특강 및 동아리 안내' 등으로 진행됐다.

그리고 대학 소속감을 확대하고, 양산지역모임 활성화를 위한 재학생들의 의견 공유 및 조언을 구하는 시간과 만찬을 가지는 등 소통을 위한 자유로운 대화모임을 가졌다. 모임에 참석한 재학생은 "온라인의 한계를 뛰어넘어 사제시간의 정을 나누고 동기들과 많은 대화를 통하여 사이버 학습의 정보가 공유되어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화신사이버대학교는 지역모임을 통하여 학생들의 온라인 소통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업과 진로상담을 통한 실질적인 학생지원서비스로 매월 1회 정기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조혜진 학생,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 선발



국제태권도지도학과 조혜진 학생이 "제30회 나폴리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파견 태권도 국가대표선수 선발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유니버시아드대회는 세계의 대학생간 우호와 친선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이 2년마다 주최하는 경기이다. 이번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해 겨루기 체급별 1위 선수 남녀 16명과 품새 남녀 10명 등 26명이 대표로 선발되었고 오는 7월 하계 나폴리 U-대회에 출전한다.

조혜진 학생은 2018년 여성부장관기 1위, 2018 전국협회장기 1위, 2019년 실업연맹1위 등 다수의 대회에서 수상하였으며 이번 나폴리 U-대회에서 겨루기 여자부 -49kg 1위를 함으로써 국가대표에 선발되었다.

조혜진학생은 "유니버시아드대회에 국가대표로 출전하게 되어 기쁘며, 대회 금메달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한편, 화신사이배대학교 국제태권도지도학과는 태권도대회에서 다수 입상하는 등 온라인 태권도지도학과로서 특징을 살려 학생들을 위한 콘텐츠제작 및 블랜드드 러닝을 주도하고 있다.

'문화복지연구회'행사 개최

본교 문화복지연구회는 문화적 권리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동아리이다. 문화복지체험활동, 문화정책의 동향 연구, 문화향유 등을 목적으로 발족되었다.

문화가 있는 날인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정기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문화복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만들었으며, 사회복지학과 김영준 교수가 동아리 지도교수를 맡고 있다.

초대 회장을 맡은 이동월 학생은 "학교에서 배우는 사회복지의 이론과 문화복지체험 등 문화향유의 기회를 가지는 배움의 기회가 되어 즐겁고 가치 있는 동아리"라고 했다.

화신사이배대학교는 사회복지 및 문화복지전문가를 지향하며 사회복지사 2급, 청소년지도사 2급, 청소년상담사3급, 다문화사회전문가 등의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학우와의 대화] 한국어교육학과 15학번 배홍기 동문

Q.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2015년 한국어교육학과에 입학하여 2017년 8월에 졸업한 배홍기입니다. 반갑습니다.

Q. 화신사이버대학교 입학동기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 돌봄교사로 6년간 재직 중 돌봄교실에 다문화 학생들이 1~3명씩 입반하여 생활하다보니 다문화에 관심이 생겼고 평소 알고 지내던 교수님과 진로상담 중 화신사이버대학교 한국어 교육학과를 소개 받아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Q. 2019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해외봉사단에 선발이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지원동기와 준비 과정, 추후 일정 및 계획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 봉사를 생활화하고 있는 저로서는 한국어교육학과 졸업 후 한글봉사를 하고 싶어서 여러 경로를 알아보던 중 코이카를 알게 되었습니다.

코이카 홈페이지와 여러 인터넷 검색을 통해 코이카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수집하였습니다.

봉사라는 것은 국내외 구분이 없겠으나 글로벌시대에 맞춰 해외봉사에 용기를 내어 보았고, 코이카 해외봉사단에 선발이 되었습니다.

3년 전부터 울산한방울 한글교사 모집에 채용이 되어 교사 활동을 해왔었는데 순수 자원봉사로 일했던 3년간의 봉사실적이 코이카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말마다 실시했던 한글수업을 통해 문화 · 종교적 차이를 극복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고, 이때의 경험 덕분에 코이카 인도네시아 한글교사를 지원함에 있어 큰 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투철한 봉사정신,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 타국문화와 종교에 대한 선입견과 올바른 이해, 무엇보다 한글교사의 전문성과 자질이 바탕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한글에 대한 자부심과 내가 바로 이름 없는 외교관이란 현실적 자긍심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놓인 그들에게 교사인 나를 통해 한글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 주려 합니다. 이런 마음이 코이카를 지원하게 된 마음이며, 합격의 열쇠였습니다.

일주일동안 국내교육 수료 후 2년간 인도네시아 한글교사로 파견(오는 29일 출국)이 됩니다. 용기를 내 도전하고, 먼저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열정과 믿음으로 따라오십시오.

Q. 화신사이버대학교 및 한국어교육학과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해주는 학교와 열정적으로 도와주시는 교수님들이 있었기에 어렵다고 느껴졌을 한국어 교육을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 및 미래의 한국어 교사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예비 한국어 교원 여러분! 한국어 교육 공부에 많이 힘들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준비하고 조금씩 나아간다면 어느새 본인이 꿈꾸었던 미래의 한국어 교사가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는 꿈을 이루는 순간임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 전진하십시오.

한국어 교육의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아가는 멋진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2019년 2학기 (신)편입생 모집

2019년 6월 1일 ~

입학상담 : 1588-5215

글로벌교육문화학부

한국어교육학과
실용외국어학과
국제태권도지도학과
디지털영상학과

상담복지학부

상담심리학과
사회복지학과
경영학과



HSCU 학신사이버대학교